

경쟁력 확보위한 지원체제 완비

유망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들이 미국 산호세에 위치한 실리콘밸리에 입주했다. 기술력은 있으나 여력이 안돼 해외로 진출할 수 없었던 국내 소프트웨어 벤처기업들이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시장인 미국에 진출함에 따라 향후 국내 소프트웨어 기술 신장은 물론 진출 기업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일 개소식을 치른 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Korea Software Incubator)를 살펴봤다.

(글/ 최진기 기자)

SW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사무실과 필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즉,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는 현지 커뮤니티로서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업체들이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와 마케팅 노하우,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과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 및 창업자본과 연계해 국내 유망 업체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

아울러 영세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통해 선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미국 시장 정보(인력, 기술, 경영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국내 기술의 적극적인 수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이를 위해 미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260평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체들을 입주시켜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업체들이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현지 시장 적응을 위한 보육센터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기간동안 입주업체는 해외 사무소 및 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 회계, 행정 등의 제반 사항과 해외 특화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 설명회, 제품 설명회 등의 이벤트 개최와 제품의 현지화를 위한 교육과 경영 컨설팅, 현지 정

보와 비즈니스 파트너 알선 등을 지원센터로 부터 제공받는다.

이는 국내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현지 지사나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입주업체들은 사무실 임대료 및 모든 사용료를 50% 절감된 비용에 제공받게 된다.(나머지 50%는 정부에서 부담)

이외에 지원센터는 미국 현지의 정부기관이나 기업,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실력있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수출업무 지원을 위해 해외 진출에 관한 애로사항 및 법률, 회계, 마케팅, 유통 등과 관련된 자문단을 현지에서 운영하고 국내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내 수출진흥부서와 긴밀하게 연결해 기업들이 문의할 경우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지원센터는 현지의 IDC, 데이터케스트 등의 시장조사 기관들과 협력해 미국 시장에 대한 규모나 접근 경로, 경쟁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한편, 현지의 각 분야별 협회나 정부 유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맺는 동시에 현지진출 외국 기관이나 협회 등과 유대관계를 강화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입주 업체 현황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지난해말 15개 업체

〈표〉 입주업체 현황

업체	대표	관련 분야	홈페이지	전화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	김진호	웹DB와 IP, 인터넷쇼핑몰	www.goldbank.co.kr	472-8433
건잠머리컴퓨터	주승환	MPEG II SW, HW	www.gunzam.co.kr	3446-6700
넥스텔	김성현	인트라넷 시스템	www.uriel.net	202-9300
디지털캐스트	황정하	인트라넷 팩스 시스템	www.digitalcast.co.kr	523-8232
디지털퓨전	김태완	방송용 컴퓨터 그래픽	www.digitalfusion.co.kr	3465-1260
미리내소프트	정재성	게임용 CD롬 타이틀	www.mirinae.co.kr	577-4001
넷게임	이철원	네트웍용 머드게임	www.ablex.net	581-7424
에인정보	조기원	인터넷 PC통신 공유 DB	www.yein.co.kr	446-6064
장미디어인터넷티브	장민근	인트라넷 시스템	www.jmi.co.kr	3476-6583
제이슨테크	유재성	교육용 CD-롬 타이틀	www.jasontech.com	3476-6580
큰사람정보통신	이영상	통신용 SW	www.iyagi.net	3444-8101

선정을 목표로 30여개업체들로부터 참가 신청서를 접수해 각 업체들의 기술력과 재무구조, 성공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12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동통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윌텍정보통신이 실리콘밸리 지역보다 통신관련 업체들이 다수 위치해 있는 샌디에이고 지역에 입주하는 것을 희망해 11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표〉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오는 6월경 2차 모집을 통해 10개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으로 있어 총 21개 업체가 실리콘밸리에 입주하게 된다.

●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

지난해 2월에 설립된 인터넷 전문업체로 홈페이지 제작은 물론 인터넷 광고, 온라인 유통, 조사 등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번 실리콘밸리 진출은 해외 DB 구축과 IP유통망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인터넷 유통망과 연동해 국내외 업체들간의 무역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차원이다. 올초 개설한 인터넷 무역 사이트의 확대 운영과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해외업체의 인터넷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해외지사 설립시까지 이용할 예정이다.

● 디지털캐스트

분산 PBX 개념을 도입한 셋탑박스 형태의 제품인 인터넷 팩스 시스템과 MP III 파일감상 휴대용 플레이어 등의 제품을 앞세워 현지 시장을 공략한

다. 콤팩트 스마트 게이트웨이로 명명된 인터넷 팩스 시스템은 기존 전화선 대신 인터넷이나 TCP/IP 기반의 네트워크를 사용함에 따라 무료로 가까운 저렴한 비용으로 팩스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용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01410이나 01411망을 이용하게 돼 시내전화 요금의 30%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 에인정보

PC통신과 인터넷 DB 공유 솔루션인 멀티넷 98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이 제품은 PC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상호 호환시켜 준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데이터 변동이 생길 경우 양쪽다 즉각 데이터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이다. 에인정보는 제품 판로 개척보다 고급 정보 획득과 선진기술 획득을 실리콘밸리 진출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넥스텔

자바기반의 인트라넷 패키지 넥스트라넷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다. 이 제품은 서블렛(Servlet)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해 웹프로토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렸기 때문에 커넥션 문제 해결은 물론 속도가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입주를 계기로 해외 업체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제품의 현지화와 데이터베이스 관련 컴포넌트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 스케줄러용 임베디드 자바 및 윈도우즈용-CE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방침이다.

● **장미디어인터랙티브**

웹기반의 전자결제와 인사관리시스템 구현에 적합한 인트라X가 주력 제품이다. 이 제품은 모든 모듈의 기본 RDBMS 연동과 다단계 보안시스템, 자체 개발 검색 엔진, 문서양식 생성기 기본 탑재, 멀티서버 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번 해외시장 진출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구축 툴과 네트워크 게임,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뽀뽀 장차트 게임 등의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 **건잠머리컴퓨터**

전량 수입제품으로 제품 가격이 3억원을 넘는 고가의 MPEC II 인코더와 DVD 타이틀 제작 시스템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건잠머리컴퓨터는 실리콘밸리 입주를 계기로 자사에서 개발한 엠팩리치와 DVD리치에 대한 영업을 적극화 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외산 제품이 3억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돌비 5.1 채널과 멀티앵글 등을 옵션화 해 이들 제품의 가격을 6천만원대로 낮춰 경쟁력을 높였다.

벤처기업 육성 정책 현주소

아이디어 경쟁은 치열하지만 성과가 없다

정부 각 부처들이 외자유치나 벤처기업 육성 등 경제현안과 관련, 현실을 외면한채 아이디어 경쟁만 벌여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연간 3천여개씩 벤처기업을 창업시킨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기존 벤처기업들은 당장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각 부처들이 외자유치 윈스톱체제에 경쟁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을 찾아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을 붙잡을 수 있는 태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벤처기업인들의 모임인 벤처협회는 10일 벤처기업 애로사항 해결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정부가 벤처기업 창업에만 관심을 기울여 어느정도 성공가능성이 입증된 기존 벤처기업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기존 업체들의 어려움을 신용보증, 세무, 인력, 수출, 규제 등으로 나누어 전 분야에 걸쳐 벤처기업 육성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창업된 벤처기업들의 3년후 생존확률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신규 창업을 위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험이 곤란 벤처기업의 생존과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진정한 벤처 대책, 실질적인 실업대책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개발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끝나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벤처기업은 줄잡아 300개가 되지만 이들 업체 상당수가 필요한 운영자금이나 시장개척 자금이 없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현재의 벤처대책은 씨앗만 뿌리겠다는 것이지 열매를 거두려는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벤처기업에서는 정부의 벤처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규모를 갖춘후 고의로 부도를 내고 인력과 조직을 3~5개로 나눠 다시 창업하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해야 가능할 것이라는 자조섞인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이 경쟁하고 있는 외국투자유치도 전략수립 경쟁에만 매달려 찾아온 투자자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첫 창구인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의 경우 인력을 보충하겠다고 해놓고 3개월이 지나도록 인력충원이나 개선방안 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인력충원에 대비해 무역센터내에 확보해 놓은 지원실은 현재까지 비어 있다.

외국인 투자를 앞선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보다 투자에 대한 외국인의 문의가 20%이상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새정부 들어 변한 것이 별로 없어 외국인들의 관심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디지털퓨전

지난해 3월 설립된 디지털퓨전은 방송용 실시간 문자 및 그래픽 발생 소프트웨어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5천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외산 제품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가격대인 자사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적극 활용해 실리콘밸리 입주를 계기로 북미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실리콘밸리에 입주한 미국 현지법인을 본사로 활용하고 국내는 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 넷게임

네트웍용 머드게임 시장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 아래 네트웍 게임의 잠재 수요도 많고 사업 환경이 다소 유리한 북미시장을 적극 개척할 계획이다. 넷게임이 해외로 영업 마켓을 전환한 것은 국내에서는 인터넷 과금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북미 시장은 현재 국내에 비해 네트웍 게임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관련 제품도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전망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미리내소프트


게임용 CD-롬 타이틀을 주로 취급하는 미리내소프트는 지난 2월 미국 JC리서치사에 12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이번 실리콘밸리 입주를 계기로 저가

형 시장을 새롭게 파고드는 동시에 최신의 정보수집, 제품의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세계 게임시장 추세가 많은 자본을 투자한 화려한 그래픽 위주의 제품으로 변모하는데 따른 것이다.

● 제이슨테크

지난해 5월 개발한 물리마을, 수학, 지구과학, 화학, 생물 등 교육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주력 상품으로 하는 제이슨테크는 교육용 CD-롬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즉, 이들 제품이 3차원 가상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이 교실에서 직접 체험하기 힘든 실험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이슨테크는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대로 적극적인 영업을 펼칠 예정이다.

● 큰사람정보통신

통신용 프로그램인 이야기가 주력 상품인 큰사람정보통신은 이야기 프로그램의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기존 그래픽 뷰어, 일정관리, 파일관리기, 인터넷 연결을 위한 전화접속 네트워킹, 팩스, 문서편집기 등의 기능외에 멀티미디어 전송기술인 K스트림, 장기, 바둑, 노래방 등의 호스트용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들을 추가해 이야기 프로그램의 해외 공략에 나선다. 

용어설명

DB(database)

데이터베이스(DB)는 잘 정리된, 상호연관을 갖는 데이터의 집합이며 자료철이다. 어느 특정조직의 응용시스템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유료로 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해 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는 문헌·신문기사·특허·판례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문헌데이터베이스와 사회·경제(주식시세등)·산업통계 등의 수치정보를 갖는 사실데이터베이스의 두 종류로 나뉜다.

도서목록·국어사전·전화번호부 등도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신속하고 쉽게 검색 또는 입력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이용, 개발된 것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즉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이다.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축적된 자료를 가공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아줄 수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발생하면 따로 정리할 필요없이 자동 추가되며 고속검색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 전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만을 관리하는 언어가 자체 내장되어 있어 프로그램 작성 능력이 없는 초보자들도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전화번호부 및 전문지식을 요하는 자료들은 프로그램화해 사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다양하게 개발, 선보이고 있어 주위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구입의 한 요령이다.